
2024년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미국 & 캐나다]



2024년 5월

금 천 구 의 회

이 보고서를
미국 & 캐나다
해외비교시찰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6. 3

의 장 김 용 술

부의장 윤 영 희

의 원 정 재 동

의 원 도 병 두

의 원 이 인 식

의 원 엄 셋 별

의 원 장 규 권

의 원 고 영 찬

의 원 정 순 기

의 원 고 성 미

|| 목 차 ||

I. 연수개요	1
1. 연수목적	1
2. 이동경로	2
3. 세부일정	3
II. 방문국 세부내용	6
1. 미국	6
2. 캐나다	10
III. 연수 세부내용	12
IV. 연수총평	42
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47

I

연수개요

□ 연수목적

-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복지, 교통, 환경,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고 배움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 제고
- 의정활동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시행함
- 급변하는 국제 환경 변화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 향상과 의원들의 미래지향적 마인드 함양

□ 연수기간 : 2024. 5. 7.(화) ~ 5. 15.(수) [6박 9일]

□ 방문국가 : 미국, 캐나다

- 미 국 : 뉴욕, 워싱턴 D.C, 뉴저지
- 캐나다 : 나이아가라폴스

□ 연수대상 : 14명(의원 10명, 직원 4명)

구분	소관상임위	직위	성명	과 제
구의원	의장단	의장	김용술	의원 해외 비교시찰 기획 및 운영 총괄
		부의장	윤영희	기관방문 등 관계자 명단 총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동	·의회운영 분야 자료수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교육·안전 분야 자료수집
	"	의원	고영찬	·마을자치 분야 자료수집
	"	의원	정순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료수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식	·도시계획, 도시재생 분야 자료수집
	"	의원	엄샛별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 분야 자료수집
	"	의원	장규권	·문화·관광 분야 자료수집
"	의원	고성미	·친환경 정책 등 도시환경교통 분야 자료수집	
수행직원	의회사무국	주무관	하성진	·행사지원 총괄 및 예산집행 및 정산
		팀 장	김미정	·의원보좌 및 상임위원회별 자료수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주무관	이호동	·의원보좌 및 상임위원회별 자료수집 (복지건설위원회)
		주무관	오재호	·의원보좌, 사진촬영

□ 보고서 작성 : 연수대상 의원

□ 이동경로



□ 방문 세부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현지시간	주 요 방 문 일 정
제1일 5월7일 (화)	구 의 회 인천공항 뉴욕 워싱턴	관용차량 OZ222 전용차량	06:30 07:30 09:50 14:00 19:00	의회 집결 후 인천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인천공항 출국 (14시간 20분 소요) 워싱턴D.C. 이동 (5시간 소요) 워싱턴D.C. 도착
제2일 5월8일 (수)	워싱턴	전용차량	09:00 14:00 16:00	<p>■ [기관방문] 미국아동복지연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는 아동복지를 아동양육의 책임을 감당 할 수 없거나 아동과 가정의 적절한 자원이나 보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 <p>■ [현장시찰] 한국전 참전 용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군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현충시설 <p>■ [문화탐방]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제적 도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사당 : 미국 권력의 심장이라 말할수 있으며 미국의 헌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 - 링컨기념관 :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연상시키는 제16대 대통령 링컨의 좌상이 있는 링컨기념관 - 제퍼슨기념관 :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을 기념해 건립된 기념 - 백악관 : 애덤스 2대 대통령부터 현재까지의 집무실 겸 관저로 이용
제3일 5월9일 (목)	워싱턴 나이아가라	전용차량	18:00	나이아가라로 이동 (9시간 소요)
제4일 5월10일 (금)	나이아가라 뉴욕	전용차량	09:00 18:00	<p>■ [현장시찰] 나이아가라폴스 공원관리부</p> <p>■ [문화탐방] 나이아가라 폭포 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손꼽히는 나이아가라 폭포조망, 테이블락, 월풀, 꽃시계, 스카이론 타워전망대 등 견학 <p>뉴욕으로 이동 (5시간 30분 소요)</p>

일 자	장 소	교통편	현지시간	주 요 방 문 일 정
제5일 5월11일 (토)	뉴욕	전용차량	10:00	<p>■ [기관방문] NewYork public Libray(뉴욕공립도서관) -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세계5대 도서관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국회도서관 다음의 규모</p>
			14:00	<p>■ [현장시찰] 첼시마켓 - 전통시장 분야 - 넓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상가로 바꾸어 뉴욕의 명소로 만든 비결 탐구</p>
			15:00	<p>■ [현장시찰] 하이라인 파크 도보답사 - 도시재생 분야 - 빌딩 숲 사이 도심을 파고드는 선형공원 하이라인파크. 1993년 개장된 파리의 프롬나드 플라테에서 영감을 얻어 맨하탄의 화물 노선에 꽃과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해서 공원으로 재이용한 장소</p>
			16:00	<p>■ [현장시찰] 리틀 아일랜드파크 - 도시재생 분야 - 뉴욕 허드슨 강 위의 작은 인공섬으로 끝 부분이 나팔 모양으로 된 280개의 콘크리트 기둥으로 구성된 도시공원.</p> <p>■ [현장시찰] 허드슨야드 프로젝트 베슬- 도시재생 분야 - 영국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 설계한 이 정교한 별집 모양의 구조물</p>
제6일 5월12일 (일)	뉴욕	전용차량	10:00	<p>■ [기관방문] UN본부 -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은 인권과 안전, 국가 경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51개국에 의해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193개 연합국이 국제연합을 구성</p>
			14:00	<p>■ [현장시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 맨해튼섬 5번가와 34블록의 모퉁이에 있는 1931년에 지어진 건물로 102층에 높이는 381m이며 1953년에 설치된 안테나 탑을 포함 할 경우 443.2m임. 뉴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건축사에서 '마천루'라는 고층 빌딩의 패러다임을 정립함.</p>
			16:00	<p>■ [현장시찰] 센트럴파크 도보답사 - 공공정원 분야 - 도심 속 오아시스라 불리는 뉴욕의 허파 센트럴파크. 파리의 볼로뉴 숲이나 런던의 하이드파크 처럼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550만 달러를 투입하여 설립된 센트럴 파크는 길이 4km, 폭800m 면적 3.41km²의 뉴욕의 상징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공원</p>
			17:00	<p>■ [문화탐방] 뉴욕의 중심 맨하튼 문화체험 - 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욕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자치구이며, 뉴욕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맨하튼 그랜드센트럴, 록펠러센터, 타임스퀘어, 성요한 대성당 등</p>

일 자	장 소	교통편	현지시간	주 요 방 문 일 정
제7일 5월13일 (월)	뉴욕	전용차량	09:00 10:00 14:00	<p>■ [현장시찰] 그라운드제로(911메모리얼 파크) -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는 폭발이 있었던 지표의 지점을 뜻하는 용어로 2977명이 사망한 2001년 9·11 테러와 6명이 사망한 1993년 세계 무역 센터 폭탄 테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설된 뉴욕의 기념관 및 박물관</p> <p>■ [문화탐방] 소호 - 소호(SoHo)는 'South of Houston'의 약자로, 휴스턴의 남쪽 지역을 말한다. 현재 뉴욕 패션과 예술의 메카인 이 지역은 명품 브랜드 매장은 물론 유명 디자이너들의 부티크와 잡화점들이 모여있는 세계쇼핑거리</p> <p>■ [기관방문] 뉴저지 주의회 의사당 - 37선거구 버겐카운티뉴저지주 최초의 한국계 여성 의원, 엘렌 박을 만나다,</p> <p>공항으로 이동</p>
제8일 5월14일 (화)	뉴욕	OZ222	00:35	뉴욕 국제공항 출발(15시간 30분 소요)
제9일 5월15일 (화)	인천공항		05:10	인천 국제공항 도착

II

방문국 세부내용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연방공화국이다. 1607년 영국이 제임스강 연안에 식민지를 조성한 이후 영국의 식민 상태였다가 1775년 미국독립혁명 후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 파리조약에서 독립이 승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정치·경제·문화 등에서 강대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다인종·다민족 국가이다.

- 국 명 :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 수 도 : 워싱턴 D.C
- 면 적 : 9,833,520km²(세계 3위)
- 인 구 : 약 341,814,420명(세계 3위, 2024년 통계청)
- 정 체 : 연방공화제
- 종족구성 : 백인 61.6%, 흑인 12.4%, 아시안 6%, 아메리카 및 알래스카 원주민 0.2%, 하와이 및 태평양 도서 원주민 0.2%, 기타 8.4%, 혼혈 10.2%
- 공 용 어 : 영어
- 종 교 : 개신교 40%, 로마가톨릭교 21%, 모르몬교 1%, 무교 29%, 유대교 1%, 이슬람교 1% 힌두교 1%, 불교 1%, 기타 3%
- 건 국 일 : 1776. 7. 4
- 통 화 : US 달러(USD, \$)
- 경제규모 : GDP 20조 4,128억\$ (세계 1위)
- 기 후 : 툰드라와 타이가 기후가 나타나는 알래스카와 상하의 나라로 알려진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본토는 대부분이 온대 또는 냉대에 속함.
- 사회특성 : 이주자와 그 2세·3세가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민족국가로 인종과 민족의 배경을 넘어 미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의식을 강화해오고 있음. 다민족 사회로 인한 인종 차별과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빈부계층간 대립이 미국사회의 근원이 되고 있음.

1. 워싱턴 D.C.

컬럼비아특별구
District of Columbia



<시기>



<휘장>

-면적: 177.0km²
-인구: 670,050명



- 정식명칭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이며, 워싱턴 D.C.로 약칭된다. 포토맥강 연안의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사이에 있는 연방직할지이며 어느 주에도 속해 있지 않다. 프랑스인 피에르 샬랑팡의 설계로 건설된 계획도시여서 백악관과 워싱턴 물을 중심으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정원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시가지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을 중심으로 넓은 도로들이 방사상으로 뻗어 있으며, 도로들은 바둑판 모양으로 교차되어 있다. 1790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미국의 수도로 지정되었고, 1878년 조지타운이 워싱턴의 일부가 된 이래로 새로운 국가의 영구 행정부 소재지로 선정된 컬럼비아 특별구와 공존하고 있다.
- 메릴랜드주 북쪽에 있는 볼티모어시와 함께 670만명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 입법·행정·사법부의 중심이며 산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 중심은 주로 관공서 관련업무이며, 교통 시설은 지하철이 많은 외곽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이웃한 메릴랜드주·버지니아주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 연방정부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이지만, 동시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빈부의 격차와 학력의 격차가 커 대도시권에 사는 주민들은 학력과 소득이 높은 반면, 시 안에 사는 주민들 중에는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장애자·노인 등이 많다.
- 명소로는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진귀한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국회도서관, 각종 박물관이 있는 스미스 소니언협회, 링컨기념관, 제퍼슨기념관, 워싱턴기념탑, 케네디 대통령이 문헌 알링턴 국립묘지 등이 있다. 철도와 항공의 중심지로는 유니언역·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립공항·덜레스 국제공항 등이 있으며, 포트맥네어·포트마이어·앤드루스 공군기지·볼링 공군기지 등의 군사시설이 인근에 있다.

2. 뉴욕주

미국 연방 가입(11번째)



<주기>



<휘장>

-면적: 141,300km²

-인구: 19,571,216명 (2023)



- 미국 북동부의 주. 미국 독립 당시의 13개 주 중 하나다. 인구는 약 2,000만명이고, 북쪽으로는 캐나다의 퀘벡주, 온타리오와 국경을 접하고, 남서쪽에는 펜실베이니아, 뉴저지와 접하고 있으며, 북동쪽에는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버몬트와 접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뉴욕'이라고 하면 이 뉴욕주 전체를 가리키기보다 이 주의 도시인 뉴욕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뉴욕주임을 강조할 땐 New York State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State of New York은 공식 명칭인데 구어에서는 잘 안 쓴다.
- 막연히 뉴욕시를 주도(州都)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주도는 올버니. 뉴욕이란 명칭은 17세기 요크 공작이었던 제임스 스투어트, 즉 훗날 잉글랜드의 제임스 2세에서 따온 것이다.
- 뉴욕 하면 다들 대도시만 떠올리지만,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로 꼽히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뉴욕주 버팔로 근교에 있다. 낙농업이 발달한 주 가운데 하나이며, 사과 생산량도 미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 또한 출판, 기계, 전자 제품 등의 공업도 발달하였다. 한국 면적보다도 1.4배 넓은 주니까 산도 있고 시골도 있고 강도 흐르고 한다. 더불어 두 번의 동계 올림픽이 열린 레이크플래시드도 뉴욕주 북부에 위치해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뉴욕 산다고 하면 다 뉴욕시(특히 맨해튼)에 산다는 것으로만 알아듣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뉴욕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농장과 숲 등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풍경을 볼수 있다.
- 뉴욕이라는 세계를 대표하는 대도시와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사과 생산과 전자제품 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등 미국의 주들 중에서는 상당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북동부에서는 오대호와 대서양과 경계하고 있는 유일한 주이기도 하다.
-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홀랜드, 바타비아 등 네덜란드령 식민지였던 시절의 흔적이 지명에 남아 있는 경우가 꽤 있다.

3. 뉴저지 주

미국 연방 가입(11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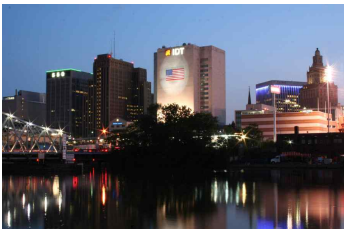
<주기>



<휘장>

-면적: 22,591.38km²

-인구: 9,267,130명 (2021)



- 미국에서 네 번째로 면적이 작고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미국 50개주 가운데 가구당 소득 수준이 최고 수준이다.
- 주로 북쪽으로 뉴욕 주, 동쪽으로 대서양, 남쪽으로 델라웨어 주, 서쪽으로 펜실베이니아 주와 접한다. 작은 주임에도 불구하고 뉴저지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공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사이에 있어 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
- 작은 주(州)인데도 불구하고, 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공업 부가가치는 미국 전체에서 7위를 차지한다. 약품을 중심으로 한 화학공업은 미국 제1위의 생산을 올리고, 정유공업과 의료품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공업도 예로부터 성하다. 근래에는 중공업의 발달도 현저하여, 전기기구·금속·자동차 공업이 성하다. 그 밖에 인쇄제본·식품가공·제지·요업 등의 제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철광석 및 아연 산지도 있다. 부근에 뉴욕·필라델피아 등의 대도시가 있어서, 채소·과일재배와 양계·낙농 등 근교농업이 활발하고 각지에 관광지가 발달하였다. 특히 대서양 연안의 애틀랜틱시티는 세계적인 대규모 관광 휴양지로 알려져 있으며, 독립전쟁 당시의 사적이나 오락·휴양용의 대삼림공원도 많다.
- 2000년 미국 인구 조사국에 의하면 뉴저지 주에는 841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50개주들 중 9번째로 많은 인구이다.
- 뉴저지 주의 가장 큰 인구 집단들은 이탈리아, 아일랜드, 독일, 폴란드, 영국 계통의 주민들이고, 14%는 아프리카계, 13%는 히스패닉, 아시아인들은 6%를 차지하고 있다.

□ 캐나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며, 전체 면적이 9,984,670km²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40%는 춥고 고립된 북극 지방으로, 원주민인 이누이트족 외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국토가 너무 넓어서 지역마다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사용하는데, 태평양 연안·산악 지역·중앙부·동부·대서양 연안·뉴펀들랜드 지역으로 나뉜다. 캐나다의 수도는 연방정부가 있는 오타와이지만, 제1의 도시는 토론토이다.



열 개의 주와 세 개의 자치주에도 각각 연방 정부에서 권한을 부여 받은 지방정부가 있다. 전체인구가 약 3,430만 명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아 세계적으로 인구가 적은 나라 중 하나이며, 그중 약 80%인 2,500만 명 이상이 남동부의 도시에 거주한다.

- 수 도 : 오타와
- 면 적 : 9,984,670km² | 세계 2위
- 인 구 : 약 40,097,761명(세계 38위, 2023년 통계청)
- 종족구성 : 백인 69.8%, 아시아계 20.2%, 원주민 5%, 흑인 4.3%
- 공 용 어 : 영어, 프랑스어
- 종 교 : 그리스도교 (55%), 가톨릭(29%), 개신교(18%), 정교회 등 기타 종파 (8%), 이슬람(3.7%), 무종교(29%)
- 통 화 : 캐나다 달러(CAD)
- 경제규모 : GDP 1조 8,834억\$ (세계 9위)
- 정치체제 : 입헌군주국으로 지방분권적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원 내각제(양원제)이며, 영어와 프랑스어 이중공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부 구성에 있어 국가원수는 영국 국왕이며 총리는 내각 구성, 총독 및 상원의원 지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기 후 : 지형이 다양한 만큼 캐나다의 기후 역시 다양하다. 남쪽의 온난한 기후부터 북쪽의 북극성 기후까지 크게 12기후 지구로 나뉜다.
- 사회특성 : 캐나다는 1인당 이민률이 가장 높은 축에 끼는 국가들 중 하나로, 국가 측에서도 이를 장려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의 이주를 장려하여 더욱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오게 하고 있다. 캐나다의 국민들과 기존 정당들 대다수들도 현재의 이민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1. 온타리오주



<주기>



<휘장>

-면적: 1,076,395 km²

-인구: 12,851,821명

- 캐나다의 정치,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주이며 주도는 토론토이다.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도 온타리오 주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남쪽으로 온타리오 호, 이리 호, 휴런 호, 슈피리어 호의 4개 호수를 통해 미국의 뉴욕 주, 펜실베이니아 주, 오하이오 주, 미시간 주, 미네소타 주의 5개 주와, 동쪽으로 퀘벡 주, 서쪽으로 매니토바 주와 경계를 접한다.
- 인구는 1,285만명이고 서비스업은 온타리오 주의 국내 총생산과 고용의 대략 4분의 3을 차지한다.
- 서비스업들은 토론토와 남부 온타리오 주의 주요 도시 지역들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 제조업은 온타리오 주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활동들이다. 캐나다의 산업 근로자들의 대략 절반이 온타리오 주에 산다. 이 근로자들은 국가의 제조물품 절반을 생산하며 캐나다의 산업 중심지이다.

■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도시이다. 1903년 6월 12일 온타리오주의 정식 도시가 되었으며 인구는 8만명 정도이다.

나이아가라 강 건너로 같은 이름의 미국 도시 뉴욕주의 나이아가라 폴스가 있는데 아름다운 폭포의 전경을 보기 위해서는 캐나다에서 바라보아야 하므로 미국쪽은 문 닫은 가게도 많은 등 흡사 슬램화 되어 있으나 캐나다의 이곳은 많은 관광객으로 봄비는 등 낮밤이 화려한 세계의 관광도시이다

III 연수 세부내용

1. CWLA(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미국아동복지연맹

□ 미국 아동복지연맹 소개

- 주소 : 727 15th Street, NW, Suite 1200 Washington, DC 20005
- 홈페이지 : <https://www.cwla.org/>
- 전화 : 202-688-4200



CWLA는 1920년부터 취약계층 어린이와 가족을 돕기 위해 노력해 온 수백 개의 민간 및 공공 기관으로 구성된 강력한 연합입니다. 정책, 프로그램 및 관행에 대한 우리의 전문 지식, 리더십 및 혁신은 전국 수백만 명의 어린이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느껴집니다.

☞ 2020년에 CWLA는 가족, 어린이 및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실천, 옹호 및 정보 공유의 표준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리더십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 **MISSION** : CWLA는 취약한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 모범 사례 및 협력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 및 파트너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참여시킵니다.
- **VISION** :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며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 **FOCUS** : 우리의 초점은 학대, 방치, 가족 붕괴 또는 안전, 영속성 또는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기타 다양한 요인을 경험했을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CWLA는 또한 이러한 아이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가족, 보호자, 지역사회에 중점을 둡니다.

- ◆ 현재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적절한 주택, 건강 관리, 영양과 같은 성공의 전제 조건이 부족합니다. 수천 명이 기회의 외곽으로 추방됩니다. 매년 평균 280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 및 방치 신고를 받고 있으며 매일 3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 ◆ 계속되는 비극에 직면하여 CWLA는 가족, 이웃, 지역 사회, 조직, 연방 주 및 지방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미국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CWLA는 공통 목표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부문과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한 번에 한 커뮤니티씩 우선순위를 재편합니다.
- ◆ 2012년과 2013년에 CWLA는 전국의 회원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아동 복지 우수성을 위한 CWLA 국가 청사진 (CWLA 국가 청사진 또는 국가 청사진으로 알려짐)을 개발했습니다.

What is The CWLA National Blueprint?

- 아동 복지 우수성을 위한 CWLA 국가 청사진은 모든 어린이가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문화, 민족, 인종 및 언어와 연결되어 성장할 것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이자 틀 역할을 합니다. 아동 복지의 미래에 대한 이 비전은 아동 복지 서비스를 받거나 아동 학대 또는 방치의 위협에 처해 있는 모든 아동이 사랑하는 가족과 지원하는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What is the Goal of The CWLA National Blueprint?

- 주요 목표는 변화의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동 복지 시스템 내외의 공공 및 민간 조직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 개인 및 그룹의 사고를 넓히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전체 시스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동시에 이는 아동 복지 실천을 발전시키는 데 독특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CWLA 프로그램별 우수성 표준을 업데이트하고 작성하기 위한 기초 역할을 합니다.

□ Who Is Involved?

- CWLA는 모든 사람이 CWLA 국가 청사진에 자세히 설명된 표준을 달성하기를 열망하도록 권장합니다. 가족, 개인,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조직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비전을 달성해야만 가장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 What is the Guiding Approach?

- CWLA 국가 청사진은 지역사회 맥락 내에서 어린이, 청소년, 가족의 강점과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 계획, 자금 조달 결정에 있어서 청소년과 가족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면 지역사회와 조직은 더 큰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What will it Take?

- 지역사회 리더십과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아동 복지, 교육, 사회 복지, 의료 시스템은 그들의 사고를 바꾸고 자금 할당 메커니즘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민간 재단과 기업 부문의 더 많은 참여와 투자와 마찬가지로 연방, 부족, 주, 지방 차원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 How is it set up?

- 국가 청사진에는 비전 및 가치 선언문과 그에 수반되는 표준과 함께 8가지 핵심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핵심 원칙은 아동의 안전, 영속성 및 복지 증진 및 향상에 전념하는 개인, 조직, 지역 사회 및 정부 기관의 사고, 의사 결정 및 행동을 안내합니다.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아동 권리; 책임 공유 및 리더십: 참여

/참여; 인력; 인종, 민족 및 문화; 자금 및 자원. 각 원칙에는 관련 리소스 목록이 포함된 리소스 섹션이 있습니다.

□ How will it be Implemented?

- 구현은 간단하지도 신속하지도 않습니다. 각 지역 사회, 조직, 가족 및 개인은 고유하므로 CWLA 국가 청사진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만 장애물이 식별됩니다. 비전을 달성하려면 모든 시스템, 서비스, 커뮤니티 및 개인의 지식, 기술 및 자원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실제 국가 청사진을 참조하세요 .

□ How will CWLA Help?

- CWLA는 구현 전략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습하고 성장하며 생산적이고 건강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성인이 되기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안 여러분의 관심, 지원 및 투자를 장려합니다.



2.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Korean War Veterans Memorial)

- ◆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부름에 대한 미국의 아들, 딸들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있는 한국 참전용사 기념비는 19명의 병사들이 우비를 입고 행진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 대리석을 세워 군인들을 38명으로 보이게 했다.이 숫자는 한국전쟁 당시 3.8선을 의미하고 미군 편제의 1개 소대원의 숫자이며 또한 38개월 계속된 한국전쟁을 의미하고 있다. 이 기념비는 전 세계에 한국전쟁 등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고, 한국의 분단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 ◆ 관초우의를 입은 짙은 회색으로 분한 전쟁 참전용사들의 어둡고 무표정한 모습은 한 맺힌 슬픈 표정으로 느껴지며 마치 혼이 되어 이곳을 떠돌고 있는 듯하다. 한국전쟁정전42주년에 맞춰 195년에 개장되었으며, 개장식에는 당시 빌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한국 대통령이 참석했다. 미군전사자 5만4246명 부상자 101만3248명으로 기록되어있다.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기념관, 이들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3.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제적 도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 미국 국회의사당(United States Capitol)

- ◆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부인 미국 의회가 있는 건물로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National Mall) 끝부분에 위치하며, 1793년 9월에 착공하여 1800년 11월에 완공된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이곳 의사당은 지리상 컬럼비아 특별구의 중심에 있지는 않으나, 4개 지구를 가르는 원점이 된다.
- ◆ 돔이 우뚝 솟은 네오클래식 양식의 웅장한 건물로 돔의 정상에는 청동으로 제작된 자유의 여신상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백악관과 함께 워싱턴 관광의 가장 중요한 곳이며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건물의 북쪽은 상원, 남쪽은 하원이 사용하며 가운데 돔의 바로 밑은 원형의 홀로 되어 있다. 국회가 소집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방문을 제한하지 않으며 회의장 내부 관람이 가능하다.



□ 백악관(White House)

- ◆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은 수도인 워싱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펜실베이니아가(街)에 있다. 백악관을 포함한 주위 부지는 모두 7만 2000m²이다. 1800년 제2대 대통령 J.애덤스 때 완성되어 1814년 대영(對英)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재건 후 외벽을 하얗게 칠한 데서 이 명칭이 생겼고, 제26대 대통령인 테오도르 루스벨트 때 정식명칭이 되었다.

- ◆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이 관저의 2층에서 산다. 대통령 집무실은 타원형 이어서 오벌 룸(Oval Room)이라 부르며, 방문객을 이 방에서 접견 한다. 방의 수는 130개가 넘으며 댄스파티와 리셉션 등이 거행되는 동관(東館:East Wing)은 일반인의 참관이 허용 되며, 백악관은 관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예산국(豫算局) 등 직속관청도 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 제퍼슨 기념관(Thomas Jefferson Memorial)

- ◆ 1776년 독립선언문의 기초 위원이었고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기념물로 미국 국립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1943년 완공된 신식민지주의풍 건축양식의 건물로 원형대리석 계단, 주랑(柱廊) 현관, 이오니아식의 원형 열주(列柱), 낮은 돔형 지붕 등을 갖추었으며, 돔형 벽면 에는 독립선언문이 조각되어 있어 내·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

- ◆ 링컨 기념관은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기념해 지은 기념관으로 건물은 그리스의 도리스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내부에는 링컨 대통령이 앉아있는 상이 있다. 좌상의 왼쪽 벽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유명한 게티스버거 연설, 우측 벽에는 링컨의 제2회 취임연설이 조각되어 있다
- ◆ 기념관은 여러 연설의 무대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대행진의 일부로 행해진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란 연설이 유명하다.



□ 자연사박물관(Smithsonian Museum)

- ◆ 박물관은 1846년 ‘인류의 지식의 증가와 보급을 위해’ 영국인인 제임스 스미슨(James Smithson)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관람료를 무료로 개방한 13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 등이 모인 종합박물관이다.
- ◆ 스미스소니언 캐슬(Castle)은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에 속한 13개의 방대한 박물관들을 관리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팸플렛과 행사정보, 비디오를 통한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보안내소가 있으며 제임스 스미슨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4. 아름다운 대자연의 경이로움 '나이아가라 폭포'

□ 나이아가라 공원관리국(캐나다)

- ◆ 1870년대 무렵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는 어떠한 규정이나 제도 없이 무분별한 관광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많은 방문자들은 이러한 관광업체들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878년부터 법적으로 관광업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1885년에 창설된 나이아가라 공원관리국은 관광,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나이아가라 폭포 일대의 관광업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 관광문화체육부 산하기관으로 납세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 ◆ 처음 설립될 때는 퀸 빅토리아 나이아가라폭포 공원관리위원회였으나 1927년에 나이아가라 공원관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격월제로 소집되는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데 위원장을 비롯하여 8명은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나머지는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시, 포트이리시, 나이아가라폴스시 및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임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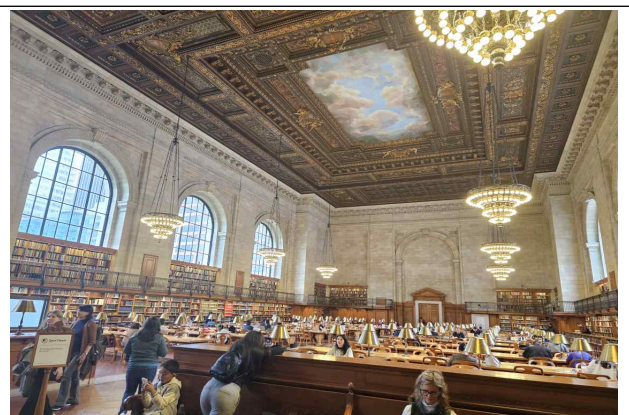
□ 나이아가라 폭포

- ◆ 미국 뉴욕주 나이아가라 폴스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폴스의 국경을 이루는 나이아가라강에 있는 폭포이다. 이리호에서 흘러나온 나이아가라강이 온타리오호로 들어가는 도중에 형성된 대폭포로 나이아가라 폭포는 두개의 대형 폭포가 있는데 이는 염소섬(Goat Island)을 기준으로 캐나다 폭포(Horseshoe Falls)와 미국 폭포(American Falls)로 구별된다. 폭포로 인해 주변은 항상 안개가 끼어 있으며, 미국 쪽보다는 캐나다 쪽의 전망이 더 좋다.
- ◆ 나이아가라 폭포의 절벽아래로 떨어지는 강물의 양은 모두 합쳐 분당 168,000m³의 물이 능선(Crest Line)으로부터 떨어진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이 떨어지는 힘은 북미의 폭포들 중에서 가장 세다. 이 물 중 50~70%는 폭포에 이르기 전에 수력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 ◆ 나이아가라 폭포는 지형상 캐나다 쪽에서 보면 정면으로 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캐나다를 찾으나,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보면 미국 쪽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지역은 관광에서 활황이고, 미국 쪽은 최근 매스컴에서 은퇴자들이 제일 살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로 꼽고 있을 만큼 열악하다. 미국 쪽 나이아가라폴스는 각종 정책 실패로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나이아가라를 무조건 돈이 되면 활용하자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동성애 결혼식장, 외출타기 등 자극적 행사를 벌이고 있고 근처 카지노의 부작용 등 높은 세금과 범죄 등을 겪고 있다. 반면에 캐나다는 유명한 관광지로서 화려한 네온사인에 잘 정비된 건물과 공원들로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었다.



5. 세계5대 도서관 '뉴욕공립도서관(NewYork public Libray)

- ◆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로 뉴욕을 대표한다. 미국내에서는 워싱턴 D.C. 국회도서관 다음의 규모를 자랑한다. 하얀색 대리석 건물이며, 3천800만점이 넘는 도서와 소장품들이 무려 120km에 달하는 책꽂이에 진열되어 있다. 셰익스피어의 첫 작품집, 제퍼슨 독립선언문 자필 원고 등 희귀본도 다수 소장되어 있으며 희소 가치가 있는 컬렉션은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 ◆ 장대한 장서를 검색할 수 있는 도서검색시스템은 세계 제일의 속도를 자랑하며 전 세계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긴 테이블이 있는 3층 열람실은 넓은 천장과 아치형 창문이 중세의 성을 연상시키는 중후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입장료가 없다.
- ◆ 도서관 명물은 계단을 지키는 사자들로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인내,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불굴의 정신을 뜻한다. 하루 두 차례 무료 투어가 있는데 도서관 내부를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고 특별 전시품도 관람 할 수 있다.
- ◆ 뉴욕도서관은 세계 5대 도서관이자 미국내 2위 규모를 차지하는 곳으로 많은 장서를 읽기 위해 또는 공부하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지만 이를 보기 위해 오는 관광객들도 엄청 많았다. 버겐카운티내에 시도서관 간에 상호대차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보면서 우리구도 선진국인 미국 도서관과 인프라적인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6. 과자공장의 놀라운 변신 '첼시마켓'

- ◆ 첼시는 뉴욕에 자리한 조용한 동네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 늘어선 거리가 멋스럽다. 15스트리트와 16스트리트 사이에 있는 첼시 마켓은 옛날 과자공장 자리에 들어선 대형 식품매장이다. 작은 빌딩의 1층, 동굴 같은 통로 양쪽으로 가게들이 뻗뻗하게 늘어서 있다.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빵집에서부터 식료품 가게, 차 가게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첼시 마켓 바스켓은 기념품으로 사기에 좋다. 각종 차와 식품류, 소품 등이 갖춰져 있다. 워낙 물건이 다양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쓰임이 실용적인데다 포장이 아기자기한 상품이 많아서 선물용으로도 그만이다.
- ◆ 시장이 위치한 건물은 100년이 지나도 튼튼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명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였다.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도시가 개발되고 자연스럽게 거리에 쪽 늘어져서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은 많이 낡아서 시설 개선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현대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럼 하드웨어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시장으로 모이게 하는 것일까? 첼시마켓은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 및 오락시설이 있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즐기고 있었고 이것이 미국 전통시장을 번성하게 한 이유가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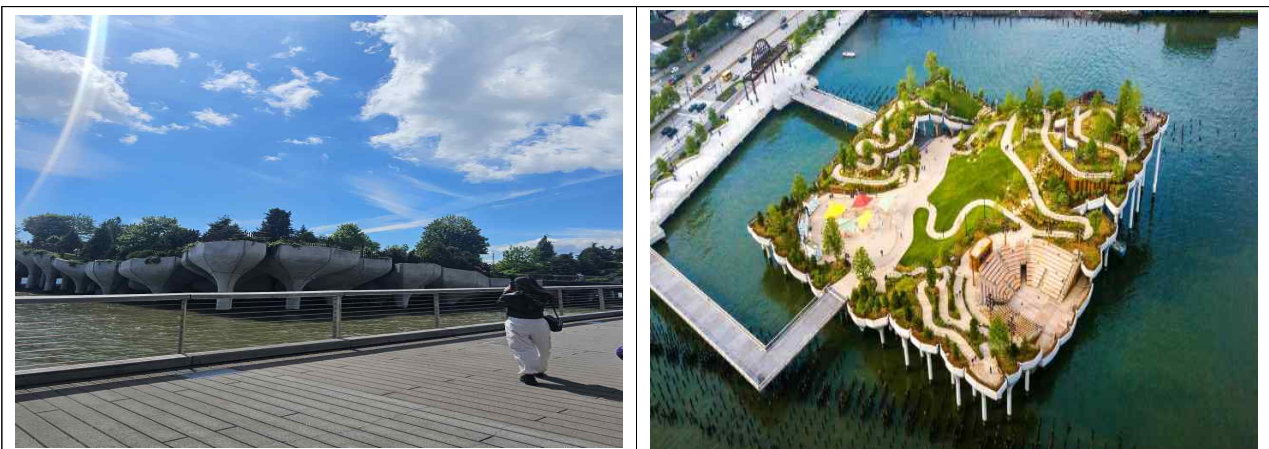
7. 뉴욕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하이라인파크'

- ◆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하이라인파크는 1980년에 완전히 운행정지된 폐선중 총 2.33km에 달하는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 ◆ 1980년대 중반 철도와 고가를 철거하려던 계획에 반대하는 “Friends of the High Line”이라는 단체가 설립되었고, 2002년 뉴욕 시의회에서는 하이라인을 재활용하자는 결의안을 채택 하기에 이른다. 2006년 공사를 시작하여 2008년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뉴욕 하이라인 파크는 길이가 1.6km로 빌딩 사이에 마련된 쉼터이자 독특한 문화공간으로서 뉴욕이나 관광객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빌딩으로 둘러싸인 뉴욕시내에 공원이 있고,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는 뉴욕커 모습이 인상적이다.
- ◆ 어찌보면 별것 아니어 보일 수도 있는 작은 규모의 공원이었지만, 도심 속에서 주변 직장인들이나 주민들이 손쉽게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색적이였다. 또한 이곳을 매력적으로 만든 것은 뉴욕의 역사가 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 ◆ 흉물로 버려진 고가철도를 시민을 위한 공공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편익제공 하였도 공적관리가 아닌 시민주도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이다. 또한 기존 구조물이 가지는 역사성을 지키면서도 현대의 공공 공간으로서의 요구를 충족 하였다. 과거의 것을 개선하고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일 것이다.
- ◆ 우리나라도 뉴욕 하이라인 파크를 모델로 서울역 고가도로를 “사람 중심의 녹색 시민” 공간으로 재생, 2017년5월 “서울로7017”이란 이름으로 개장하였다.



8. 맨해튼의 거대한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 파크'

- ◆ 리틀 아일랜드는 첼시 마켓 인근인 맨해튼 서쪽 허드슨강 공원 13번가에 위치한다. 서쪽 지역은 항구와 산업시설이 자리했던 곳이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며 오래된 항만 시설과 건물 안에는 트렌디한 상점들이 자리하며 빈티지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맨해튼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강에서도 과거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촘촘히 박힌 나무 파일들이다. 꽤 먼 곳 까지 박힌 파일들은 부두의 크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자연스레 선원들이 선박에서 물건을 내리고 옮기던 융성했던 시장 풍경이 떠오른다. 공원을 설계한 토마스 헤드워드도 이 오래된 파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 ◆ 허드슨 강변에는 촘촘히 남아있는 오래된 나무 파일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리틀 아일랜드의 파일은 조금 특이하다. 소재가 콘크리트고, 파일 윗부분이 둥그런 튕립 모양이다. 일정한 높이로 심은 파일 위에 반듯한 나뭇판을 깔아 만드는 부두와 달리 높낮이가 다른 꽃봉오리 형태의 파일들로 이루어진 리틀 아일랜드는 실제 섬처럼 자연스러운 구릉이 형성됐다. 구릉보다 더 신기한 것은 긴 튕립 모양의 콘크리트 파일을 어떻게 만들었냐다. 이 설계를 구현하기 위해 강바닥에 54개의 콘크리트 파일을 일정간격으로 심은 다음, 파일 상단 부분에 거푸집으로 튕립 잎사귀를 만들었다고 한다. 132개의 튕립들은 다른 튕립들과 모자이크처럼 촘촘히 연결된다. 각 튕립 파일들은 토양과 잔디, 전망대, 나무를 고정하며 큰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9. 맨해튼의 허드슨 야드 재개발 프로젝트 '베슬'

- ◆ 뉴욕시 맨해튼의 허드슨 야드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된 구조와 방문객 명소다. 영국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 설계한 이 정교한 벌집 모양의 구조물은 16층 높이로 계단 154개, 계단 2500개, 관람객들이 오를 수 있는 착륙지 80개로 구성돼 있다.
- ◆ 지난 2019년 3월 오픈 당시 허드슨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뉴욕 시내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명소로 큰 인기를 끌었다. 개장 당시 3달 넘게 예약이 꽉 차 있을 정도로 뉴욕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뉴욕 타임스퀘어-자유의 여신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하지만 오픈부터 지난달 7월까지 총 4번의 자살 사고가 생기며, 현재 잠정 폐쇄되었다.



10. 세계 평화의 수호신 'UN본부'

- ◆ UN본부(United Nations Headquarters)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의 본부 건물이며, 1952년 완공 이래 유엔의 공식 본부로 쓰여왔다. 이스트 강을 바라보는 맨해튼의 터틀 만 이웃에 자리잡고 있으며, 서쪽으로 1번가, 남쪽으로 동부 42번지 거리, 북쪽으로 동부 48번지 거리, 동쪽으로 이스트 강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 ◆ 유엔은 3개의 부가적인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제네바, 빈, 나이로비에 있다. 그러나 뉴욕에 있는 본부 건물 만이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유엔의 주요 기관을 갖추고 있다. 모든 15개의 전문 기구들은 뉴욕의 외부와 다른 도시들에 본부를 두었다.
- ◆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력활동을 하며, 주요기구와 보조기구, 전문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 설립 일:1945.10.24.
 - 설립목적 : 전쟁방지, 평화유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 국제협력증진
 - 주요활동:평화유지,군비축소,국제협력
 - 가입국가:195개
 - ☞ 정회원국193개,참관회원국(observerstate)2개(바티칸시티,팔레스타인)
- ◆ 유엔 본부의 대지는 치외 법권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유엔의 규칙들이 뉴욕의 법들을 남용하는 법률 집행에 영향을 주나, 거기서 범죄를 일으키는 자에게 면역을 주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유엔 본부는 유엔 직원들 몇 명이 외교적 면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법권과 법률 아래에 남아있어, 외교적 면역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미루어지는 한 지방 재판소에 의하여 기소되지 못한다.



11. 미국의 랜드마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 ◆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은 맨해튼섬 5번가와 34블록의 모퉁이에 있는 1931년에 지어진 건물로 102층에 높이는 381m이며 1953년에 설치된 안테나 탑을 포함 할 경우 443.2m이다. 86층의 콘크리트 건물 위의 16층짜리 철탑은 본래 비행선의 계류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바람이 심해 비행선 정박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전망대와 방송용 안테나만이 위치해있다.
- ◆ 이 빌딩을 정점(頂點)으로 하는 마천루군은 20세기 전반(前半) 뉴욕의 비즈니스 기능의 집중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상징물이 되었으며, 86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빌딩 건축당시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어서 건축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며,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었다.
- ◆ 90년이 넘는 매우 오래된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착공 및 완공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빨리 지었는데도 90년이라는 세월을 버틴 엄청 튼튼한 건축물이다.



12. 뉴욕 맨해튼의 오아시스 '센트럴파크'

- ◆ 미국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도시 중심부의 공원으로 매년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공원이다. 동서로 약 800m, 남북으로 약4km에 이르며, 면적 3.4km²에 북쪽으로 서부 110번 가, 남쪽으로 서부 59번 가, 서쪽으로 센트럴 파크 서부, 동쪽으로 5번 가에 접해 있으며, 숲·연못·잔디·정원·동물원·시립미술관 등이 있다.
- ◆ 세상에서 가장 바쁜 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 조성된 거대한 녹지인 센트럴파크는 '도심에서 자연으로 최단시간 탈출'이라는 움스테드의 설계 철학이 확고히 드러난다. 센트럴파크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공원설계의 전형적인 표본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원 안에는 동물원과 야생보호구역도 있다고 한다.
- ◆ 최초의 근대적 공원으로서 특권계층이 아닌 일반시민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적인 공원'의 효시라 인정받고 있다. 도시공원 관리의 민관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로서, 민간 비영리단체인 센트럴파크 관리위원회(the Central Park Conservancy)와 뉴욕시가 함께 관리하며, 공원의 벤치 등은 시민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설치(기부자의 이름 표 부착)하는 등 공원운영 전반에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정착 되어 있다.



13. 뉴욕의 중심 맨하튼

□ 맨하튼

- 맨해튼(Manhattan)은 미국 뉴욕주 뉴욕의 자치구 중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자치구로, 허드슨강에 있는 섬을 포함하여 본토의 몇 블록을 포함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맨해튼은 뉴욕주의 뉴욕군(New York County)과 동일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맨해튼섬(Manhattan Island)을 비롯해 루스벨트섬, 랜들스아일랜드, 워즈섬, 거버너스섬, 리버티섬, 밀 록, 엘리스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브롱크스와 밀접해있는 지역인 마블힐 역시 맨해튼의 일부이다.
- 증권거래소가 있는 월가(街),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등 상업중심지의 마천루군(摩天樓群), 예술가가 많은 그리니치빌리지, 센트럴파크,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본부 외에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오페라단, 컬럼비아대학교, 그밖에 여러 문화·교육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 월가(Wall Street)

- ◆ 월가(Wall Street)는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가로 뉴욕시의 맨해튼 남부에 위치한 거리이다. 금융기관이 집중하여 고층빌딩이 임립 하는데, 이 지구는 식민지 시대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월스트리트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 거리는 브로드웨이 내리막길 로부터 금융행정구의 역사중심 지를 통과하여 남부거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고향이다.
- ◆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가로, 1792년 창립된 세계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주식(증권)거래소를 비롯하여, 대증권회사·대은행이 집중되어 있어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데, 세계 무역센터가 2001년 9월 11일의 공격으로 붕괴되었을 때 주변 도시들로 비즈니스 분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영향력은 아직 크다고 할 수 있다.

□ 타임스 스퀘어

- ◆ 브로드웨이, 7번가, 42번가가 교차하는 곳에 형성되었으며 초기에는 롱에이커 스퀘어로 알려졌으나, 1903년에 뉴욕타임스가 이곳으로 이전해오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1899년 오스카 헤머슈타인이 이곳에 최초로 극장을 세우면서 브로드웨이 공연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번화하고 분주한 유흥지역으로서 미국 공연문화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 ◆ 이곳에서는 제야에 불이 밝혀진 공이 내려오면 새해를 향해 카운트다운을 하는 전통이 뉴욕타임스가 이전해오던 때부터 시작되어 해마다 12월 31일 밤이면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으며, 또한 이곳에는 서경덕교수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광고판과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들의 광고도 볼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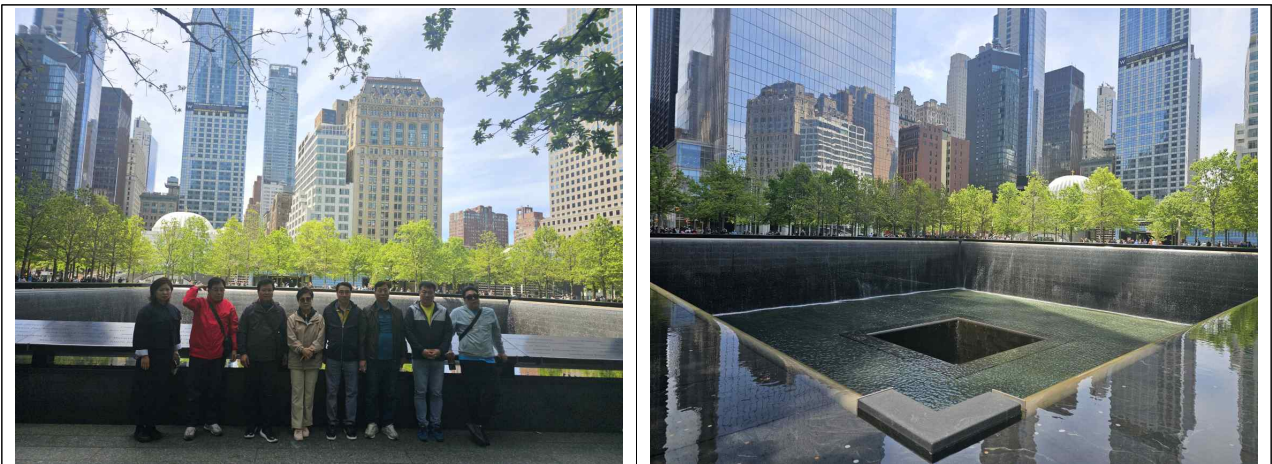
□ 록펠러센터

- ◆ 맨하탄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48번가와 51번가의 22에이커의 땅에 19개의 상업용 건물이 사방에 세워져 각 건물의 저층은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다. 가장 큰 GE 빌딩은 높이 259m, 70층이며, 꼭대기에 톱 오브 더 록(Top of the Rock)이라는 전망대가 있다. 도심에 위치한 반 지하 플라자에는 만국의 국기와 프로메테우스의 황금 동상이 서 있고 여름에는 카페 테라스, 겨울에는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로 사용된다. 특히 12월이되면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14. 과거를 잊지 않는 나라 '911메모리얼 파크'

- ◆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9.11 테러로 사망한 2,977명의 희생자와,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로 사망한 6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구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현장(그라운드 제로)에 지어졌다. 9.11 테러 10주년인 2011년 9월 11일에 개장하였다.
- ◆ 실제 건물이 무너진 공간을 memorial plaza로 만들었으며, 그 주위를 6개의 새로운 빌딩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조성되었다. 설계개념은 쌍둥이 빌딩이 있던 공간을 '부재(不在)의 반추(Reflecting absence)로 구성했는데, 이는 '의도가 있는 침묵, 목적을 가진 공백'을 상징하고자 초대형 폭포를 만들고, 그 안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희생자의 부재를 표현했다.
- ◆ 희생자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듯한 폭포의 면적은 $4,046m^2$ (약1220 평), 1분에 쏟아져 내리는 양은 1만 1400L에 달하며 마치 폭포소리는 아픔속에서도 뉴욕이 희망과 생동감을 잃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 북미에서 가장 큰 인공폭포(호수)라 함. 두 개의 폭포를 둘러싼 가장자리 난간에는 희생자의 이름을 새겨 의미를 더했으며, 친분을 고려해 배치하는 섬세함으로 죽은 넋을 기리고 있다.
- ◆ 추모공간으로서의 장소성과 역사성, 정체성을 잘 살린 공공디자인으로 두 개의 거대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시각·청각적 효과와 추모공간인 동시에 공원로서의 역할 부여 희생자의 이름 배치를 알파벳순 등 임의로 배열하지 않고 희생자의 동료, 친구, 가족의 이름과 나란히 새김.



15. 예술가의 도시 '소호'

- ◆ 소호(SOHO)는 사우스 어브 하우스턴(South of Houston)의 머릿글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호의 특징은 창고로 쓰였던 주철의 단단한 건물들과 코블스톤 스트리트이고, 자갈이 깔린 거리 들은 거주민들이 업타운으로 이주한 이후인 1850년대에 등장했다. 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화려한 건물의 윗층에는 로드&테일러, 티파니스 같은 회사들과 직물, 도자기, 유리제품 판매사들이 들어서 있으며 아랫층은 아트 갤러리를 위한 전시공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 ◆ 1900년대 패션사업 관련 업체들이 업타운으로 이주 함에 따라 이 지역은 황폐해져 허름한 노동착취 공장으로 가득 찬 빈민가로 전락했다. 그러다 새로운 노동법에 의해 소호의 노동착취공장 들을 철거시키면서 소호의 대변혁이 시작됐으며, 1960년대를 지나 면서 예술가들이 조용히 이곳의 버려진 건물에 이주하기 시작했다. 싼 임대료, 넓고 천장이 높은 창고를 그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 하려는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새로운 예술의 거리로 부상하기 시작 했으며, 1970년대까지 주거, 상업, 예술 지구로 변모시키면서 독특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했다.
- ◆ 소호거리를 지나가면서 느낀 것은 예술가적 도시라는 느낌보다는 유명 브랜드 상점들이 많이 밀집한 골목으로 보였다. 이 거리도 유명해지면서 상가가 많이 들어서고 월세가 많이 올랐다고 한다.
- ◆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가난한 예술가들이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유명해지면서 각종 상권들이 들어서고 집세가 올라가면 결국 예술가들이 떠나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나라 신사동 가로수길 등 유명한 거리가 생겼고 이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16. 뉴저지주 최초의 한국계 여성 의원 엘렌 박 **뉴저지 주의회 의사당**

□ 엘렌박(Ellen Park) 소개

- 뉴저지 주하원 의원
 - 법사위원회 위원장(Judiciary Committee Chairwoman)
 - 예산 위원회(Budget Committee)
 - 상업, 경제개발, 농업 위원회(Commerce, Economic Development, and Agriculture Committee)
 - 37선거구 버겐카운티
- 미국 뉴저지주 최초의 한국계 여성 의원, 엘렌 박
 - 2022년 1월 초선으로 임기를 시작한 엘렌 박 의원은, 2023년 재선 도전에 성공, 이번 회기에도 역시 뉴저지주 주하원 전체 80명 의원 중에서 유일한 동아시아계 의원으로 활
- 뉴저지주 '김치의 날' 제정
 - 엘렌 박 의원은 미국에서 한인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주인 '뉴저지'를 대표하는 주 하원 의원이다. 여든 명의 하원 의원과 마흔 명의 상원 의원 총 120명의 주의회 의원 중 최초이자 유일한 한인 의원이다.
 -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난 뒤 1987년 미국으로 이주한 엘렌 박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했다. 주류 사회에서 한인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정치적 신장'이라 여긴 엘렌 박 의원은 2016년 시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에 발을 들였고, 2021년 11월 주 하원의원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 2022년 12월 뉴저지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발의했고, 베트남 전쟁 참전 한국군 예우 법안, 인종차별 제지 법안을 마련하는 등 한인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

○ 더 많은 한인 정치인 탄생의 디딤돌이 되고 싶다

- 엘렌 박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문제를 듣기 위해 지역 내 여러 한인 단체를 구준히 만나오고 있다. 올해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총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8천만 원 규모의 주 정부 예산을 따내기도 했다. 주 정부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 책정을 따로 받은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 한인이 많은 지역인만큼 차세대 한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고, 왕성한 정치 활동을 통해 주류 사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엘렌 박 의원. 대통령 꿈은 없지만 그래도 제일 높은 데까지 가고 싶다는 그의 도전과 꿈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 뉴저지 주의회

○ 뉴저지정부

- 뉴저지 주 정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법부의 주요 기능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부지사, 주정부 기관)는 법으로 정한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사법부(대법원 및 하급법원)는 위반자를 처벌하고, 논란과 논쟁을 해결하며, 법률의 의미와 합헌성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입법부(주의회)

- 상원과 하원이 입법부를 구성합니다 . 상원은 40명의 의원 으로 구성되고 , 하원은 80 명의 의원 으로 구성됩니다 . 뉴저지의 40개 지역구에서 각각 상원의원 1명과 하원의원 2명을 선출합니다. 상원과 하원 의사당은 트렌턴의 주 의사당에 있습니다.

○ Legislative Organization

- 각 하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직을 선출합니다(상원 의장과 총회 의장).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은 부지사 다음으로 주지사 승계 서열 2위와 3위입니다.

- 의장은 하원 내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들은 회의 일정과 심의할 법안의 일일 일정을 결정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 의장과 위원을 임명하고, 심의를 위해 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하원 업무를 지휘합니다. 하원은 양원의 사업 운영을 감독할 상원 비서와 총회 서기를 각각 선출합니다.
- 각 하원의 각 정당은 또한 다수당 지도자, 소수당 지도자, 보조 지도자 및 "채찍"과 같은 정당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정당 지도자들은 의회에 제출된 문제에 대한 정당 정책 개발을 돕습니다.
- 각 하원은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다수의 상설 참고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법안의 장점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익 집단의 대표자와 일반 대중에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Legislative Elections

- 선거는 매 홀수 해 11월에 치러진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새로운 10년의 첫 번째 임기는 2년입니다. 이 "2-4-4" 주기를 통해 각 재할당 후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상원의원은 최소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당선되기 전 최소 4년 동안 뉴저지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하원의원은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2년 동안 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 Legislative Powers

- 입법부의 주요 기능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변경 또는 폐지하기 위한 제안은 법안으로 의회에 제출됩니다. 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양원에서 다수결로 통과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는 과정은 그 과정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 입법부는 또한 뉴저지 헌법 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은 각 하원에서 3/5(상원에서 24표, 하원에서 48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주지사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과되면 제안된 수정안은 공개 투표를 위해 11월 투표용지에 회부 됩니다. 입법부가 2년 연속 과반수 투표로 통과시키는 경우에도 개정안이 유권자에게 제출될 수 있습니다.
- 주의회의 추가 권한에는 주지사의 판사 및 기타 공무원 임명에 대한 상원의 승인이 포함됩니다. 의회는 또한 미국 헌법 수정안을 비준 할 권한도 있습니다. 주 감사관 을 임명합니다 . 회원의 선거와 자격을 판단합니다. 국가 공무원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고 수행합니다.
- 1992년 11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입법부가 행정 규칙과 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 Forms of Legislative Action

- 공식적인 입법 조치는 법안 통과나 구성원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 하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표현됩니다. 결의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동 결의안은 양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 결의안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지만 주지사에게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결의안은 제안된 하원에서만 고려됩니다.

○ The Budget Process

- 주정부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6월 30일에 끝나는 회계연도를 운영합니다. 주지사는 주의회 첫 번째 회의 후 세 번째 화요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연간 예산 메시지를 주의회에 전달합니다.
- 제안된 예산은 상원 예산 및 예산 책정과 하원 예산 위원회의 검토를 받습니다. 주지사의 예산 제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는 행정부 구성원과 대중이 증언하는 동안 직원 조사와 일련의 청문회를 통해 수행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입법 예산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3월, 4월, 5월에 열렸습니다.

- 세출위원회는 연간 세출예산안의 형태로 예산을 작성합니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세출 법안은 양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또는 거부권을 무효화하여 제정). 예산은 7월 1일까지 서명되어야 합니다.



IV 연수 총평

- 2024년 금천구의회 의원 해외비교시찰을 위해 의원 10명과 수행 직원 4명 등 총 14명은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6박 9일간의 일정으로 세계 최강 미국 내에서도 정치·경제 중심지인 워싱턴 D.C.와 뉴욕 등 동부지역을 포함하여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폴스 등을 방문하였고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선진시스템을 배우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기획하였다.
- 처음 방문지인 미국아동아연맹(CWLA)은 1909년 부양 아동 보호에 관한 백악관 회의에서 시작되어, 1920년부터 취약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CWLA가 탄생 되었다는 역사에 놀란다. 어린이를 위한 복지가 100여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든다. 또한 1,100개 이상의 공공 및 비영리 기관으로 구성된 연합협회이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사무실도 작고 직원 수도 적어 작은 복지관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동 복지 단체이며, 규모도 전국적으로 1,100개 이상의 공공 및 비영리 기관 구성된 최대 규모의 연합체이다. 직원 수는 115명이며, 대부분 재택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 공간이 작다고 한다. 아동학대 및 방치 예방 및 치료를 하고, 아동 보호 외에도 친족 돌봄, 가족 위탁 돌봄, 입양,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 프로그램, 주거 집단 돌봄, 보육, 가족 중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며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 등을 도심에 건립하여 미국을 위해 일한 위대한 정치가나 애국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었으며,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일반 시민들도 언제나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9.11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도심공원으로 조성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날의 상처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인 맨하탄 중심지인 그곳을 비워놓고 돌에 희생자 이름을 새겨 놓아 그들을 추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테러나 총기사고는 없으나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사고나 성수대교·삼품백화점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은 언제 그랬냐는 잊혀졌다. ‘과거를 잊지 않는 나라’ 미국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잊혀지지 않게 잊혀져서는 안되는 역사로 기억하도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도 배워야 할 점이다.

- 나이아가라 폴스에서는 웅장한 나이아가라 폭포의 위용을 보면서 자연 유산을 갖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 국민들이 부럽게 느껴졌다. 한해 방문객 2,000만명 이라는 관광자원과 수력발전소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 보니 엄청나다. 무엇보다도 주어진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하기만 해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는 환경을 가진 것이 부럽지만 그 외에도 배울 것이 많았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객들이 자연의 모든 모습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생태계를 잘 보존하려는 철학과 실천들이 돋보였다. 선진국들이 자연을 가꾸고 사랑하며 환경을 보전하는데 그토록 많은 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향후 관광정책 개발에 반드시 고려해 볼 사항이다.

- 나이가가라를 다녀오면서 장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다녀왔다. 하지만 한가지 의문점이 미국 대형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 안전벨트가 의무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규정을 찾아보니 미국의 대형버스에는 안전벨트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 승객용 안전벨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는 10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고 수시로 운행일지를 적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이 엄격하다. 속도는 100km 이상은 못 밟도록 철저히 막아 놨다. 운전자의 휴식을 충분히 확보 하도록 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었다. 이런 철저한 운전시스템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뉴욕 맨하튼의 상징적 건물이다. 102층의 빌딩이 1931년도에 지어졌다는 사실에 광장히 놀랐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놀라운 기술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건설 기간이 1년 45일, 단 410일에 불과했다. 혁신적인 건설 기술도 있지만 헌신적인 인부들의 공이 커보인다. 크레인이 없던 시절 인부들의 노력에 의해 지어진 것 같다. 그런데 사진 속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있다. 그 시절은 노동자 보호규정이 미미해서 그럴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3,500여 명이 인력이 투입되었는데 공식적인 사망자는 5명이라도 한다. 이 건물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경외심과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흥물로 버려진 고가철도를 하이라인파크로, 옛날 과자공장을 리모델링한 첼시마켓, 자칫 폐허로 남을 공간이 주민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주민주도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원칙이 지켜지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시스템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공간 재활용이 도시재생과 친환경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 뉴저지 주의회 의사당에서 뉴저지주 최초의 한국계 여성 의원, 엘렌 박을 만난 것이 매우 반갑고 뜻깊었다. 2021년 11월에 주 하원으로 당선되어 2023년에는 재선에 성공하였다. 뉴저지주에서 최초의 한인 의원으로서 한인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12월에는 뉴저지 ‘김치의 날’을 제정했다. 한인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정치적 신장’이라며, 엘렌 박 의원을 통해 더 많은 한인 정치인 탄생되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뉴저지 주의회는 한 나라의 국회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같은 권한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 이번 6박 9일이라는 연수기간 동안 다른 세계 강국인 미국의 지방의회 제도의 운영체제를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되었고, 도시발전의 선진사례를 직접 둘러봄으로써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지향점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연수가 되었다.

- 아울러 이번 선진의회 방문과 선진 도시방문의 계기로 우리의 의회 운영 제도와 방문국 도시의 문화, 예술, 관광 등 비교를 통하여, 자질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견문 확대를 통한 의정 활동 접목과 새로운 시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끝으로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금천구의원 여러분들과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협조해 주신 외국 기관과 공무국외출장 관련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 하는 의정 활동에 기여하겠다고 약속 드린다.

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네이버 지식백과
- 위키백과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미국 아동복지연맹 홈페이지
- 뉴저지 주 홈페이지